20대부터 70대까지 · 5대 리스크 보장 점검 가이드

보험,
나이마다 지켜야 할 것이 다릅니다

건강 · 상해 · 노후 · 상속 · 손해
통계로 보는 우리 가족의 리스크, 그리고 보장점검이 필요한 이유

건강 상해 노후 상속 손해

Q1. 암 치료비, 건강보험이 다 해결해 줄까요? → 6쪽

Q2. 은퇴 후 부부 생활비, 매달 얼마나 모자랄까요? → 13쪽

Q3. 건강보험료,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요? → 16쪽

Q4. 상속세,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낼 수 있을까요? → 20쪽

Q5. 자취방 누수·화재, 누가 물어주나요? → 22쪽

→ 답은 이 가이드 안에 있습니다

1.8분

1.8분마다 1명, 새로운 암 환자가 생깁니다
2023년 한 해 신규 암환자 28만 8,613명

보건복지부·중앙암등록본부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2026.1)

만든이 **삼성생명 강남리젤지점 FC 신의철**

공공 통계 · 법령을 바탕으로 개인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삼성생명의 공식 자료가 아니며,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OVERVIEW · 한눈에 보는 5대 리스크

00 누구에게나 있는 5가지 리스크, 상황에 따라 먼저 볼 곳이 다릅니다

질병·사고·긴 노후·상속·배상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서 우리 집 상황에 맞는 칸을 찾아, 먼저 볼 페이지부터 펼쳐 보세요.**

건강
64.9%
건강보험 보장률(2024). 나머지 35.1%는 본인 부담[6]
건강보험 밖의 비용: 비급여·간병·소득 공백

상해
40%
응급실 손상 중 추락·낙상 비중[10]
사고 후 '일할 수 없는 시간'

노후
39.7%
노인 소득빈곤율, OECD 37개국 중 최고(평균 14.8%)[14]
부부 평균 연금으로는 월 약 150만 원 부족

상속
6.2%
2025년 사망자 중 상속세 과세 비율. 2010년 약 1%[15]
세금은 현금으로, 6개월 안에

손해
19.4만 건
2025년 교통사고, 하루 약 530건[11]
민사·형사 책임은 따로

우리 집 상황별로 먼저 볼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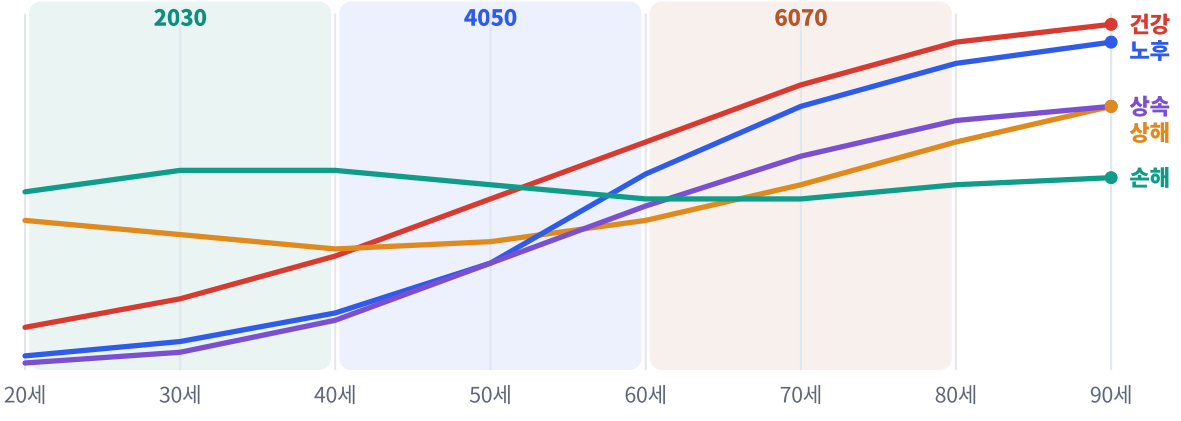
사회초년생 · 1인 가구
- 4쪽 암은 얼마나 흔한가
- 10쪽 상해: 다쳐서 못 일할 때
- 14쪽 노후: 연금별 평균 수령액
- 21쪽 첫 차: 형사 책임 비용
- 22쪽 자취: 화재·누수 배상
- 25쪽 실손 세대·갱신 점검

자녀·대출 있는 가장
- 7쪽 가장이 암 진단을 받으면
- 8쪽 뇌·심장 진단비 범위
- 13쪽 은퇴 부부 생활비 공백
- 17쪽 우리 집 연금 계산
- 18쪽 가장의 사망 보장 계산
- 23쪽 자녀·반려견 배상책임

은퇴 전후 (55세 전후)
- 9쪽 치매·간병 비용
- 11쪽 유병자 고지의무
- 13~14쪽 생활비 공백·연금 평균
- 15~16쪽 건보료 전망
- 17쪽 우리 집 연금 계산
- 19~20쪽 상속세 현실·일정

생애 리스크 지도

연령대별 상대적 부담을 표현한 개념도(통계 수치 아님) · 우리 가족은 어느 구간에 있나요?



출처 [6] 진료비 실태조사 2024 · [10] 손상통계 2025 · [11] 교통사고 통계 2025 · [14]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5 · [15] 국세청 통계(머니투데이)

AGE MAP · 나이대별 우선순위와 핵심 사실

00 같은 5대 리스크라도 나이대마다 먼저 챙길 것이 다릅니다

●이 많을수록 그 나이대에 먼저 점검할 필요가 큰 리스크입니다(일반적인 생애주기 기준). 각 칸에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통계·법령을 함께 적었습니다. **실제 우선순위는 가족·소득·자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그 차이를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보장점검**입니다.

리스크	2030	4050	6070
건강	●●○ 15~34세 암 발생 1위는 갑상선암[3]	●●● 여성 유방암(40~69세), 남성은 50대부터 대장암 증가[3]	●●● 65세 이상 1인당 연 진료비 550.8만 원, 전체 평균의 2.4배[8]
상해	●●○ 직업·업무가 바뀌면 보험사에 알릴 의무(상법 제652조)[18]	●●○ 후유장해 보험금 = 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 낙상 환자의 50.4%가 60세 이상[10]
노후	●●○ 국민연금은 가입 20년 이상이면 평균 112.1만 원[13]	●●● 은퇴 부부 적정 생활비 월 298.1만 원 vs 부부 평균 연금 147.4만 원[12,81]	●●● 노인 소득의 49.9%가 근로소득(OECD 평균 27%)[14]
상속	●○○ 상속세 납부 의무는 물려받는 상속인(자녀)에게 있음	●●○ 우리나라 가구 평균 부채 9,534만 원[40]	●●● 상속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18]
손해	●●○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 대상 가능[18]	●●○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여러 개 가입해도 비례보상[20]	●●○ 고령 운전자 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10.8% 증가 (2025)[11]

핵심 포인트

나이가 바뀌면 리스크의 '모양'이 바뀝니다.

20대에는 사고·배상 리스크가, 40~50대에는 소득 공백과 가족 부채, 60대 이후에는 의료비·간병·상속이 통계상 두드러집니다.
가입 당시의 보장이 지금의 리스크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보장점검입니다.

출처 ● 우선순위는 일반적 생애주기 기준 예시 · [3] 연령군별 암발생률 · [8] 건강보험통계연보 · [10] 손상통계 · [11] 교통사고 통계 · [12][13] 노후생활비·국민연금 · [14] OECD · [18] 관련 법령 · [20] 금감원 · [40] 가계금융복지조사

만든이 : 삼성생명 강남리젤지점 FC 신의철

RISK 01 · 건강·상해 ① 암은 얼마나 흔한가

01 1.8분마다 1명, 새로운 암 환자가 생깁니다

2023년 한 해 새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28만 8,613명**, 하루 약 790명입니다. 1999년 10만 명 수준에서 **24년 새 약 2.8배**로 늘었습니다. 지금 암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273만 명, 기대수명까지 산다면 **국민 10명 중 4명(41.2%)**이 암을 경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8.9만 명
2023년 신규 암환자
하루 약 790명 · 전년 대비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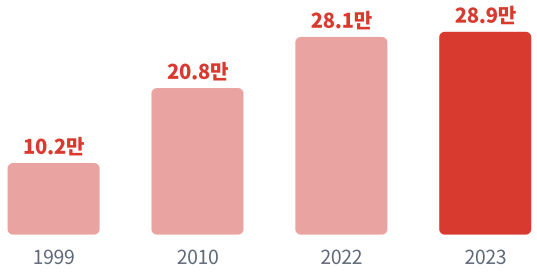
273만 명
암 유병자
국민 19명 중 1명[2]

41.2%
평생 암 발생 추정
남 44.6% · 여 38.2%[23]

50.4%
신규 환자 중 65세 이상
2023년 14만 5,452명[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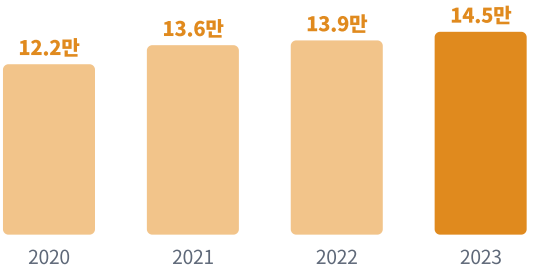
신규 암환자 수,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암 발생자 수(명)[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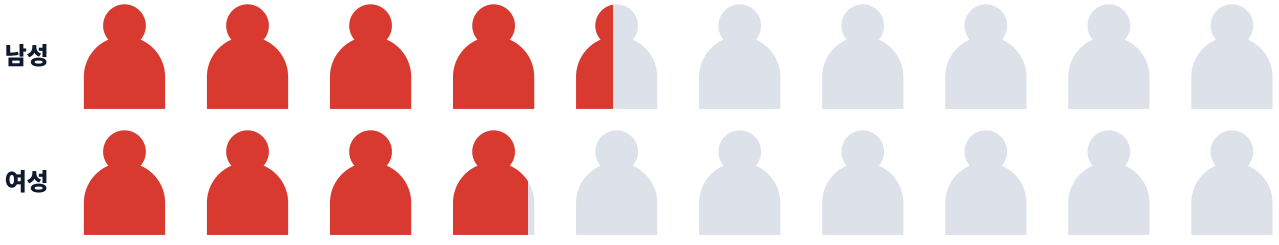
65세 이상 신규 암환자, 3년 새 19% 증가

2020~2023년, 명[50]



기대수명까지 산다면, 10명 중 몇 명이 암을 경험할까요?

남성 44.6%(약 2명 중 1명), 여성 38.2%(약 3명 중 1명)[1] · 4인 가족 모두 기대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평균 약 1.6명꼴(41.2% × 4, 단순 환산)



핵심 포인트

환자 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입니다. 오래 살수록 암을 만날 가능성은 커집니다.

인구 구조 영향을 뺀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2023년 10만 명당 522.9명으로 최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령 인구가 늘면서 실제 환자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50]

출처 [1] 국가암정보센터 · [2] 국립암센터 웹진 · [23] 2023 국가암등록통계 참고자료 · [50] 보건복지부 2023 국가암등록통계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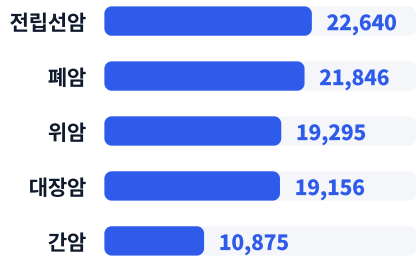
RISK 01 · 건강·상해 ② 누가, 어떤 암에 걸리나

01 남자는 전립선·폐, 여자는 유방·갑상선 나이와 성별마다 찾아오는 암이 다릅니다

10~40대에는 **갑상선암**이 가장 많고, 50대 초반까지는 **여성**의 암 발생률이, 50대 후반부터는 **남성**의 발생률이 더 높아집니다. 60대에는 **인구 10만 명당 1,021명**, 80세 이상은 1,867명에게 암이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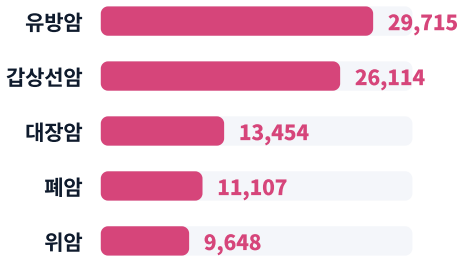
남성 암 발생 TOP 5

2023년, 명[23]



여성 암 발생 TOP 5

2023년, 명[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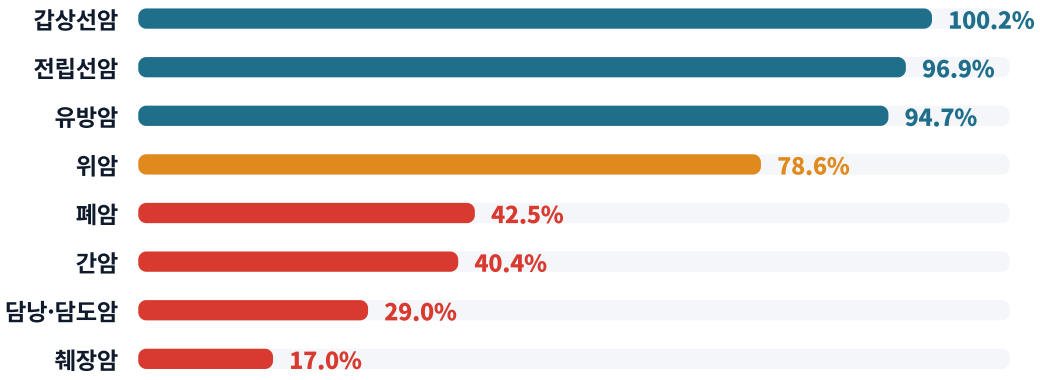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암 [23]

1. **0~9세** — 백혈병 1위
2. **10~49세** — 갑상선암 1위
3. **~50대 초반** — 여성 발생률이 더 높음
4. **50대 후반~** — 남성 발생률이 더 높음
5. **60대 이상** — 60대 1,021명 / 80세+ 1,867명

암종별 5년 상대생존율 (2019~2023년 진단)

상대생존율: 같은 성·연령 일반인 대비 5년 생존 비율. 100%를 넘으면 일반인과 같거나 약간 높다는 뜻 · 국가암정보센터[24]



핵심 포인트

생존율 100%의 암도, 17%의 암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암이 올지 고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존율이 높아진 만큼 치료 이후의 삶(재발 검사, 소득 공백, 생활비)을 버텨야 하는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RISK 01 · 건강·상해 ③ 암 치료비, 무엇이 비싼가

01 건강보험이 되면 5%, 안 되면 100% 암 치료비는 '비급여'에서 갈립니다

암 환자는 산정특례로 **5년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5%**만 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신약·신기술은 건강보험 적용 전까지, 또는 적용 기준 밖에서 쓰일 때 비급여가 됩니다.

같은 면역항암제(키트루다) 1년, 급여 적용 시

365만 원

산정특례 본인부담 5%[26]

20배

차이

급여 기준 밖에서 쓰면(비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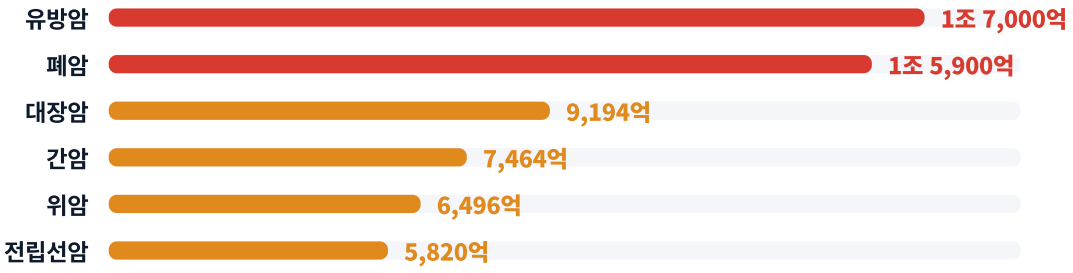
7,302만 원

연간 투약비 전액 본인 부담[26]

대표적인 고가·비급여 치료	환자 부담	건강보험
면역항암제(키트루다) 2026년 1월부터 13개 암종으로 급여 확대, 급여 기준 밖 사용은 비급여	**연 약 7,302만 원**	적응증 따라 다름[26]
중입자 치료 국내 일부 병원 도입(2023)	**약 5,500만 원**	미적용[27]
로봇 수술 갑상선암·전립선암 등	**평균 1,000만 원 이상** **최대 3,800만 원**	미적용(비급여)[28]
간병인 간병인 고용자의 40%가 하루 11만 원 이상 지출(2023년 조사)	**한 달 약 330만 원 이상** 하루 11만 원 × 30일	대부분 미적용[29]

암 진료비, 5년 새 32% 늘었습니다 (2024년 암종별 건강보험 진료비)

10대 암 진료비 5년간 32.2% 증가(2020년 5.52조 → 2024년 7.30조 원)[30]



핵심 포인트

비급여·간병비·소득 공백은 건강보험 보장률에 잡히지 않는 비용입니다.

실손은 실제 쓴 치료비를 돌려받는 방식이고, 세대에 따라 비급여 한도·자기부담률·보상 범위가 다릅니다.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 진단비 담보가 있는지 증권에서 확인해 보세요.

RISK 01 · 건강·상해 ④ 가상 사례로 보는 진짜 비용

01 45세 가장이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1년 가계부로 본 '진짜 비용'

아래는 앞 페이지의 공개 통계·비용 사례를 조합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병기·치료 방법·병원에 따라 실제 비용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병원비만이 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단 후 1년 동안 나가는 돈	A. 급여 치료 중심	B. 로봇수술 + 비급여 면역항암제를 함께 쓴 경우
항암 치료비 A: 면역항암제 급여 적용(5%) / B: 급여 기준 밖 사용(비급여)[26]	365만 원	7,302만 원
수술 B: 로봇수술 선택 시 평균[28]	급여 본인부담(소액)	1,000만 원
간병비 2개월 × 월 약 330만 원[29]	660만 원	660만 원
소득 공백 가정: 월 소득 400만 원 × 휴직·치료 6개월	2,400만 원	2,400만 원
1년 합계(실손 적용 전)	**3,425만 원**	**1억 1,362만 원**
실손 보상 추정 **4세대 실손 가정: 급여 80%·비급여 입원 70% 보상, 통원 회당 20만 원 한도[69]**	**– 약 292만 원** **급여 본인부담 365만 원의 80%**	**– 약 1,040만 원** **통원 17회 × 20만 원 + 수술 700만 원**
실손 적용 후 남는 부담(약)	**3,133만 원**	**1억 322만 원**

가상 사례 · B는 로봇수술과 급여 기준 밖 면역항암제를 모두 사용한 경우를 가정 · 면역항암제 3주 간격 연 17회 통원 가정 · 급여 수술 본인부담·검사비·교통비 미포함 · 소득·휴직 기간은 가정값 · 가입 세대·약관에 따라 실손 보상액은 달라짐

핵심 포인트

실손을 적용해도 A에서 약 3,133만 원이 남고, 그중 약 98%는 간병비·소득 공백입니다.

실손은 병원비를 돌려주지만 간병인 비용과 멈춘 월급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B처럼 고가 통원 치료는 회당 한도 때문에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내 증권에서 확인할 것

실손 세대 · 한도
몇 세대 상품인지, 비급여 통원 회당 한도와 자기부담률

암 진단비 금액
가입 금액과 유사암 지급 비율, 감액 기간이 있는지

간병 관련 담보
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는지, 지급 일수 한도는 얼마인지

우리 집 계산 : 월 소득 _____ 만 원 × 치료 기간 _____ 개월 = 소득 공백 _____ 만 원

출처 [26] 키트루다 급여 확대 · [28] 로봇수술 비용 · [29] 간병비 조사 · [69] 4세대 실손 한도 · 가상 사례이며 실제 비용은 개인별로 다름

RISK 01 · 건강·상해 ⑤ 뇌·심장 질환

01 뇌·심장 진단비는 '이름'보다 '보장 범위'가 중요합니다

심장질환은 사망원인 2위, 뇌혈관질환은 4위입니다. 뇌혈관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117만 명**, 심장질환은 **183만 명**입니다. 그런데 진단비가 **어느 질병까지 보장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달라집니다.**

117만 명
뇌혈관질환 진료인원(2022)
1인당 진료비 256만 원[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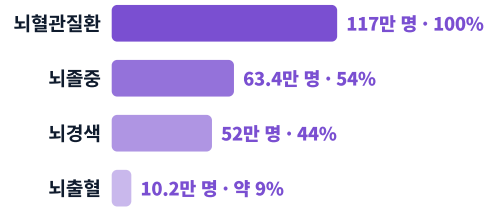
183만 명
심장질환 진료인원(2022)
진료비 2.54조 원, 4년 새 38.5%↑[32]

2위·4위
심장·뇌혈관질환 사망 순위
2024년 사망원인[4]

40~46%
20~30대 여성 뇌혈관질환 증가율
2018→2022 · 남성 23~3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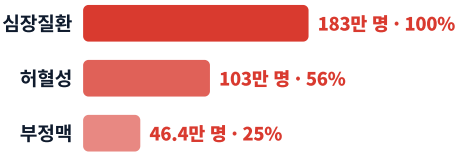
뇌혈관질환 보장 범위별 대상 환자 수

2022년 진료인원[31]



심장질환 보장 범위별 대상 환자 수

2022년 진료인원[32] · 급성심근경색은 허혈성의 일부



핵심 포인트

'뇌출혈'만 보장한다면, 뇌혈관질환 진료 환자 중 약 9%만 해당합니다.

부정맥(I47~I49, 46만 명)은 허혈성 심장질환(I20~I25) 진단비 대상이 아닙니다. 진단비의 이름이 아니라 약관의 질병코드(예: I60~I69, I20~I25) 범위를 확인하세요. ※ 한 해 진료인원 기준 단순 비교이며, 실제 보험금 지급 확률은 아닙니다.

약관에서 확인할 질병코드 범위

뇌 쪽 범위
뇌출혈만인지, 뇌경색까지인지, 뇌혈관질환(I60~I69) 전체인지

심장 쪽 범위
급성심근경색만인지, 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I20~I25)인지

그 밖의 심장 · 혈관
부정맥·심부전이 포함되는지, 혈관 중재술·수술 담보가 있는지

나이대별 체크포인트

2030
- 20~30대 뇌혈관질환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여성 40~46%↑)
- 기존 진단비의 질병코드 범위 확인

4050
- 고혈압·당뇨 등 대사질환이 오래 쌓이면 혈관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 기존 진단비가 뇌출혈·급성심근경색만인지 확인

6070
-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60%가 60~70대(2019)[32]
- 갱신 조건·만기와 수술비 보장 점검

RISK 01 · 건강·상해 ⑥ 치매·간병

01 치매 환자 100만 명 눈앞, 돌봄 비용은 누가 감당할까요?

2025년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으로 추정되며, 환자 1명의 연간 관리비용은 **시설·병원 이용 시 3,138만 원**입니다. 이 비용은 본인뿐 아니라 **자녀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97만 명
65세 이상 치매 환자 추정(2025)
2044년 201만 명 전망[9]

3,138만원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
시설·병원 기준 · 재가 1,734만 원[9]

18.2년
질병을 안고 사는 기간
기대수명 83.7 − 건강수명 65.5[5]

연금만으로 치매 돌봄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치매 1인당 연간 관리비용[9] vs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월 약 68만 원 × 12개월[13]



장기요양보험을 받아도 본인 부담이 남습니다: 재가급여 15%, 요양원 등 시설급여 20%(저소득 감경 대상은 9~12%·6~8%)[97].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와 간병인 비용은 따로 냅니다.

핵심 포인트

간병·치매는 '치료비'가 아니라 '돌봄비'입니다.

간병인 비용처럼 실손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영역이 많습니다.

약관 · 증권에서 확인할 것

치매 담보의 단계
경도(CDR1)·중등도·중증 중 어느 단계부터 지급되는지

간병 관련 담보
간병인 사용 일당인지 정액인지, 요양병원도 해당되는지

장기요양 등급 연계
장기요양 등급 판정과 연계된 지급 조건이 있는지

나이대별 체크포인트

2030
- 부모님의 치매·간병 보장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기

4050
- 부모님 간병과 내 노후 준비가 겹치는 시기, 부모님 보장부터 점검
- 내 치매·간병 담보 여부도 확인

6070
-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 2027년부터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시범 적용 추진(본인부담 약 30% 예정)[21], 대상 제한적

출처 [5] 2024 생명표 · [9] 보건복지부 2023 치매역학조사 · [13]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 · [21]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보도 · [97] 장기요양 본인부담

만든이 : 삼성생명 강남리젤지점 FC 신의철

RISK 01 · 건강·상해 ⑦ 상해

01 다치는 건 순간, '일할 수 없는 시간'은 길게 갑니다

응급실을 찾은 손상 환자 **5명 중 2명은 추락·낙상**, 그다음은 운수사고(15.5%)입니다. 2025년 교통사고 부상자는 27만 명이 넘었고, **낙상(미끄러짐) 환자의 절반(50.4%)은 60세 이상**입니다.

40%
응급실 손상 중 추락·낙상
손상 원인 1위[10]

15.5%
운수사고 비중
손상 원인 2위[10]

27.2만 명
2025년 교통사고 부상자
사망 2,549명[11]

50.4%
낙상 환자 중 60세 이상
2025 손상 통계[10]

사고 낙상·교통·운동 중 → **수술·입원** 골절·인대·수술 → **후유장해** 영구적 기능 손상 → **소득 감소·간병** 일할 수 없는 시간

핵심 포인트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의 사고'로 질병과 구분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가입금액 × 장해지급률로 정해집니다. 증권에서 가입금액과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약관 · 증권에서 확인할 것

후유장해 담보
가입 금액과 장해지급률 몇 %부터 지급되는지

골절 · 상해수술 담보
골절 진단·수술 담보가 있는지, 지급 조건

상해 입원 · 간병
입원 일당·간병 담보가 있는지, 지급 일수 한도

나이대별 체크포인트

2030
- 직업·업무가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함, 안 알리면 보험금 삭감 가능[18]
- 퇴사하면 단체보장 종료. 단체실손은 요건 충족 시 1개월 내 개인실손 전환 가능[52]

4050
-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가족 생활비·소득 대비 충분한지
- 배우자·자녀 상해 보장도 함께 점검

6070
- 80세 이상은 손상 사망의 22.6%[10]
- 낙상 → 골절 → 장기 입원 → 간병으로 이어지는 보장 연결 확인

RISK 01 · 건강·상해 ⑨ 유병자(간편심사)

01 유병자 보험, 고지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75세 이상의 **46.2%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가장 흔한 것은 고혈압(69%)입니다. 고혈압·당뇨처럼 관리 중인 병이 있어도 **간편심사 보험은 세 가지 질문(3·N·5)만으로 가입 여부를 정합니다.**

46.2%
75세 이상 만성질환 3개 이상
한국의 사회동향 2025[63]

69%
75세 이상 고혈압 유병
가장 흔한 만성질환[63]

3개
간편심사 고지 질문
3·N·5 구조[64]

질문	간편심사 '3·N·5'에서 묻는 것[64]
3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나요?
N	최근 **N년**(상품별로 다름) 이내 질병·사고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았나요?
5	최근 **5년** 이내 암·심장질환·뇌졸중·간경화 진단을 받았나요?

기록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내역을 떼어 보고 답하면 고지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스스로 고지 여부를 판단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64].

사례 **추적관찰은 추가검사가 아님**
경과를 지켜보는 정기 추적검사는 고지 대상인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있었습니다(2026.7)[65].

위반 **알릴 의무 위반 시**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18].

비교 **일반심사와 비교**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심사로도 가입될 수 있습니다. 같은 보장이면 일반·간편 상품의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함께 비교하세요.

약관 · 증권에서 확인할 것

고지 질문의 기간
3·N·5 질문의 N이 몇 년인지 확인

일반심사와 비교
같은 보장의 일반·간편 보험료 차이

유병력자 실손 조건
보장 범위·자기부담 조건 확인

RISK 01 · 건강·상해 ⑩ 정리

01 치료비보다 무서운 건 '치료받는 동안의 생활비'입니다

건강보험은 진료비의 64.9%를, 암 환자에게는 75.0%를 보장합니다.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고, **치료 기간 멈춘 소득은 건강보험도 실손보험도 채워 주지 않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나눠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4.9%
건강보험 보장률(2024)
전체 진료비 기준[6]

75.0%
암 환자 보장률
4대 중증질환 81.0%[6]

15.8%
비급여 본인부담률
전년 대비 0.6%p 상승[6]

0원
소득 공백 보상
건강보험·실손 원칙적으로 없음 (상병수당 시범지역 제외)

진단 암·뇌·심장 질환 → **치료비** 법정 본인부담 + 비급여 → **소득 공백** 휴직·치료·회복 기간 → **고정비는 계속** 생활비·대출·교육비

핵심 포인트

실손은 병원비 영수증을, 진단비는 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실손은 실제로 쓴 의료비를 돌려받는 구조라 치료 기간의 월급·생활비는 채워주지 않습니다. 두 담보는 역할이 다릅니다.

약관 · 증권에서 확인할 것

실손 세대
몇 세대 실손인지, 비급여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률

암 진단비
가입 금액, 유사암 지급 비율, 감액 기간

뇌 · 심장 진단비
뇌출혈만인지, 뇌혈관질환 전체인지 보장 범위

수술 · 입원 담보
수술 종류·입원 일수별 지급 조건

나이대별 체크포인트

2030
- 15~34세 암 발생 1위는 갑상선암[3]. 유사암(갑상선암 등) 지급 비율 확인
- 갱신형이라면 갱신 주기·인상 폭 확인

4050
- 여성 유방암(40~69세), 남성 50대부터 대장암 증가[3]
- 갱신형 보험료가 은퇴 후에도 감당 가능한지 점검

6070
- 65세 이상 1인당 연 진료비 550.8만 원, 평균의 2.4배[8]
- 80세 만기라면 의료비 정점(78세)[7] 즈음 보장이 끝나는지 확인

출처 [3] 연령군별 암발생률 · [4] 2024 사망원인통계 · [6] 2024 진료비 실태조사 · [7] 생애의료비 · [8] 건강보험통계연보 · [17] 금융위원회

RISK 02 · 노후 ① 은퇴 부부의 생활비 공백

02 은퇴 부부 한 달 생활비 298만 원, 평균 연금으로는 절반도 안 됩니다

50세 이상이 생각하는 은퇴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월 298.1만 원**, 최소 생활비는 216.6만 원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은 모두 합쳐 **1인 월평균 73.7만 원**, 중간값은 49.7만 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평균만큼 받아도 147.4만 원, 적정 생활비의 49%입니다.** 실제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76.0만 원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보다도 40만 원가량 적게 쓰고 있습니다[87].

298.1만 원
은퇴 부부 적정 생활비(월)
최소 216.6만 원[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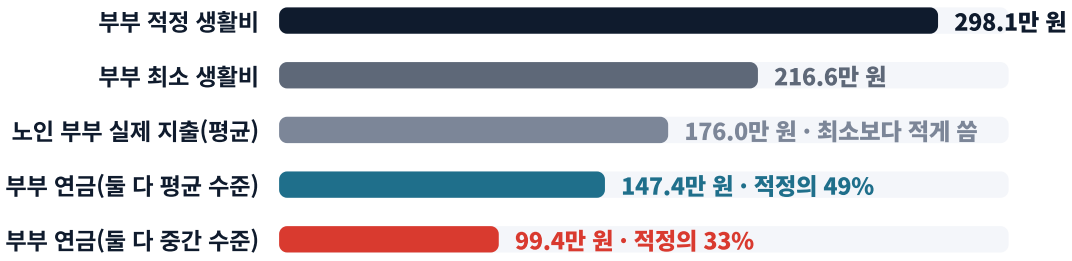
73.7만 원
65세 이상 1인 연금(월평균)
모든 연금 합산 · 중위 49.7만 원[81]

55.6%
60~64세 연금 0원
은퇴 후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81]

176.0만 원
노인 부부 실제 소비지출(월)
2023년 노인실태조사[87]

은퇴 부부, 필요한 돈 vs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 (월)

적정·최소: 국민노후보장패널 제10차[12] · 실제 지출: 2023 노인실태조사[87] · 연금: 65세 이상 1인 월평균 73.7만 원·중위 49.7만 원 × 2인(부부 모두 수급 가정)[81]



부부 연금 수준 (월, 부부 합산)	적정 생활비 대비 부족	최소 생활비 대비 부족	20년이면 (적정 대비)
둘 다 평균 수준 73.7만 원 × 2 = 147.4만 원	월 150.7만 원	월 69.2만 원	약 3억 6,168만 원
둘 다 중간 수준 49.7만 원 × 2 = 99.4만 원	월 198.7만 원	월 117.2만 원	약 4억 7,688만 원
우리 부부 예상 연금 합계 _____ 만 원	월 _____	월 _____	_____

부부 모두 해당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65세 이상 수급자 통계 기준) · 물가상승·세금·건보료 미반영 · 20년 = 월 부족액 × 240개월

핵심 포인트

**부부가 평균만큼 연금을 받아도 매달 약 150만 원,
20년이면 약 3억 6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60~64세의 55.6%는 연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81]. 희망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지만 실제 은퇴는 56세로 9년 빠르다는 조사도 있어[85], 연금이 나오기 전 '소득 공백'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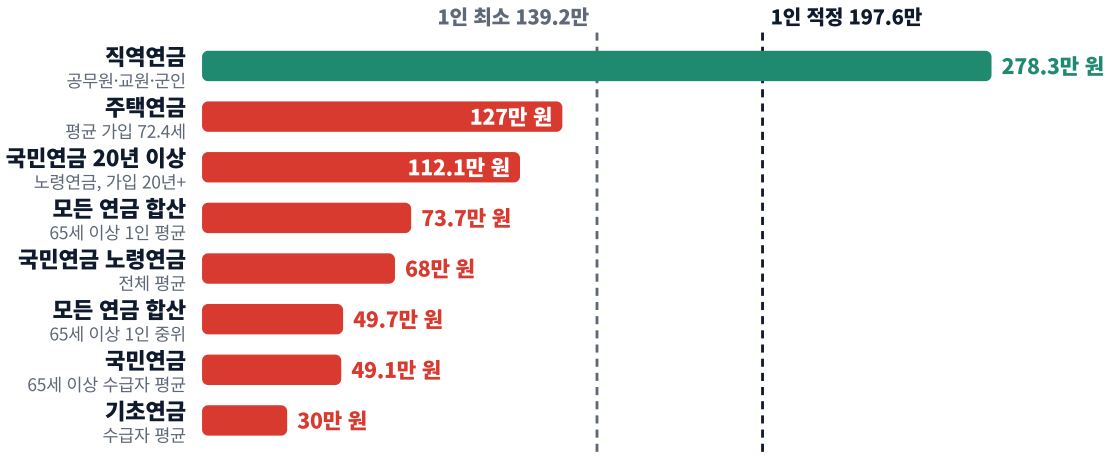
RISK 02 · 노후 ② 연금별 평균 수령액

02 내가 받을 연금, 평균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노후 소득은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을 쌓아 만듭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84.1%가 월 100만 원 미만**을 받고,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계좌는 **13%**뿐입니다. **공적연금에 가입한 50대 이상의 86.6%는 자신의 예상 연금액을 모릅니다**[12].

연금별 월평균 수령액 vs 1인 노후생활비

점선: 50세 이상이 생각하는 1인 최소 139.2만 원 · 적정 197.6만 원[12] · 빨강 =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침



노령연금: 2025.7 공단[13] · 65세 이상: 2024 연금통계[81] · 기초연금 2026 최대 단독 34만 9,700원·부부 55만 9,520원[82] · 주택연금[83] · 퇴직연금은 87%가 일시금(연금 13%)[84]

84.1%
월 100만 원 미만 수급자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중[81]

46.7%
월 25만~50만 원 구간
가장 많은 구간[81]

65.7%
필요 생활비 대비 조달 가능액
350만 원 중 230만 원(KB 조사)[85]

32.5%
은퇴가구 생활비 부족 경험
최근 1년(보험연구원 조사)[86]

핵심 포인트

연금은 '있다'보다 '매달 얼마'가 중요합니다.

같은 국민연금이라도 가입 20년 이상이면 평균 112.1만 원으로, 전체 평균(68.0만 원)의 약 1.6배입니다.
내 예상 연금액은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17쪽 계산표).

세법 · 제도에서 확인할 것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연 900만 원 한도(합산)[18].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경감

사적연금 과세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을 고릅니다

공적연금 조회
국민연금·기초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

출처 [12] 노후보장패널 · [13] 국민연금 · [18] 소득세법 · [81] 2024 연금통계 · [82] 기초연금 · [83] 주택연금 · [84] 퇴직연금 · [85] KB · [86] 보험연구원

RISK 02 · 노후 ③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02 월급에서 떼는 돈은 늘고, 은퇴 후 건보료는 온전히 내 몫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오르기 시작해 **2033년 13%**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6.12%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6.55%에서 **13.14%로 두 배**가 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유지 시 **건강보험 준비금이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3%
국민연금 보험료율(2033)
2026년 9.5%부터 매년 0.5%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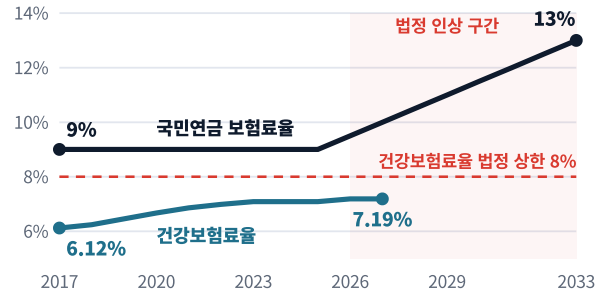
7.19%
건강보험료율(2026·2027)
2017년 6.12% · 법정 상한 8%[33]

2배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 대비)
2017년 6.55% → 2026년 13.14%[34]

2029년
건보 준비금 소진 전망
현행 유지 시, 국회예산정책처[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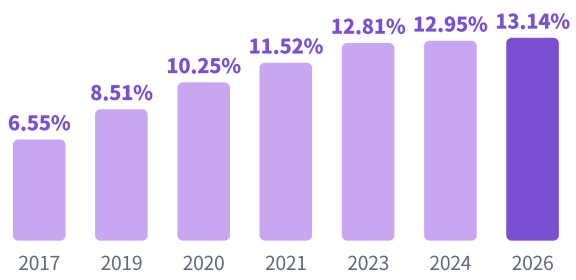
국민연금·건강보험료율 추이

근로자·사용자 합산, 소득 대비[33,35]



장기요양보험료율 추이 (건강보험료 대비)

2018·2022년 생략 · 2025년 동결 · 2026년 소득 대비 0.9448%[34,51]



은퇴 후 노후 소득의 종류	지역가입자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판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의 50% 반영**	연 소득 2,000만 원 기준에 포함
이자·배당(금융소득)	**연 1,000만 원 초과 시 반영**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포함
재산(주택·토지 등)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반영**	재산 요건 별도(과세표준 5.4억·9억 원 기준)
연금저축·IRP·연금보험(사적연금)	**현재 미반영**	**현재 미반영**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 본인 부담이며 재산도 반영됩니다[37] · 부과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음

핵심 포인트

같은 노후 소득이라도 종류에 따라 건보료 반영 여부가 다릅니다.

건보료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하며,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 [33] 2027 건보료율 동결 · [34] 장기요양보험료율 · [35] 국민연금 개혁 · [36] 국회예산정책처 · [37] 은퇴 후 건보료 · [38] 비과세 요건

RISK 02 · 노후 ④ 앞으로의 사회보험료

02 사회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은퇴 후에는 혼자 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이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준비금이 2029년 소진**될 것으로 봤습니다. 연구기관들의 장기 전망에서는 건강보험료율이 **2060년 약 2배(14.3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55년 지금의 2.7~3.6배**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 보험료를 회사 없이 혼자 냅니다.**

2배
건강보험료율 2060년 전망
2024년 7.09% → 14.3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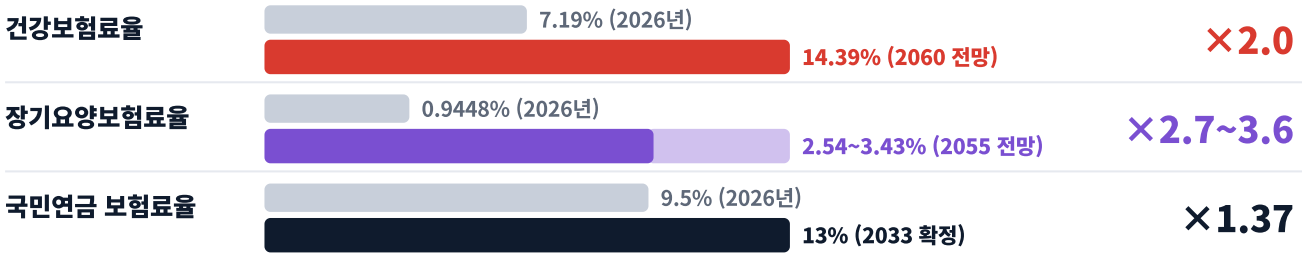
3.6배
장기요양 2055년 전망
현행 대비 2.7~3.6배[71]

44.6조 원
2050년 건강보험 적자 전망
현행 제도 유지 시[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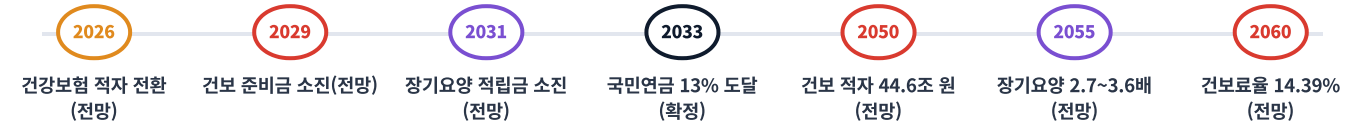
70.2%
2050년 노인 진료비 비중
2023년 44.1%[72]

지금 vs 앞으로: 소득에서 떼는 비율

근로자·사용자 합산, 소득 대비 · 회색 = 현재, 색 = 전망/확정(연한 부분은 전망 범위)[34,35,70,71]



연도별로 보면 35,36,70,71,72



요율만 오른다면, 은퇴 후 내 건보료는? (단순 계산)	지금	건보료율 2배(2060년 전망)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소득·재산이 그대로이고 요율만 7.19% → 14.39%로 오른다고 가정	월 20만 원 연 240만 원	**월 약 40만 원** 연 약 480만 원

월 20만 원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값 ·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 전망치는 인구·경제·제도 유지 등 연구별 가정에 따른 추계이며 확정된 요율이 아닙니다. 법정 건보료율 상한은 현재 8%이며, 전망치는 필요한 재정을 보험료율로 환산한 값입니다[36].

핵심 포인트

보험료율은 계속 오르고,
건보료를 매기는 소득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상 소득과 재산에 매겨지며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의 이자·배당 등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부과 범위는 넓어지는 흐름입니다[72].

출처 [34] 장기요양보험료율 · [35] 국민연금 개혁 · [36] 국회예산정책처 · [70] 고려대 JKMS 2025 · [71] 장기요양 연구용역 · [72] 보사연 전망

RISK 02 · 노후 ⑥ 우리 집 연금 계산

02 평균은 13~14쪽에서 봤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 숫자로 적어 보세요

노후 소득은 **국민연금 · 기초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주택연금**을 쌓아 만듭니다. 가운데 참고 수치는 13~14쪽의 평균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상액을 각각 적고, 목표 생활비와 비교해 매달 부족액을 확인하세요.**

노후 소득원 (월)	참고: 평균 (13~14쪽)	우리 부부(만 원)
① 국민연금 · 본인	노령연금 평균 약 68.0만 원 · 20년 이상 112.1만 원[13]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액 조회	_____
② 국민연금 · 배우자	65세 이상 수급자 평균 49.1만 원[81] 배우자 가입기간이 짧으면 크게 줄어듦	_____
③ 기초연금	수급자 평균 30.0만 원[81] · 2026년 최대 부부 55만 9,520원[82]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_____
④ 퇴직연금(IRP)	87%가 일시금으로 받음(연금 수령 13%)[84]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경감	_____
⑤ 개인연금(연금저축·연금보험)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 900만 원 한도[18]	_____
⑥ 주택연금·기타	주택연금 평균 약 127만 원[83] · 임대·근로소득 등	_____
합계 (A)	참고: 부부 둘 다 평균 수준이면 147.4만 원(13쪽)	_____
목표 생활비 (B)	부부 적정 298.1만 원 · 최소 216.6만 원[12] 노인 부부 실제 소비지출 176.0만 원[87]	_____
매달 부족액 = B − A	**참고: 평균 부부, 적정 기준 월 150.7만 원(13쪽)**	_____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남는 배우자의 월 소득은?	참고	만 원
본인 국민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의 30% 또는 유족연금만 선택(둘 중 유리한 쪽)	본인 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은 30%만 더해짐[96]	_____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없어져 단독 기준, 최대 34만 9,700원[82]	_____
개인연금·주택연금·기타	계약 내용·수익자 확인	_____
1인 생활비와 비교한 부족액	**1인 적정 197.6만 원 · 최소 139.2만 원[12]**	_____

받는 시기와 세금

국민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 감액, 늦출 때마다 7.2% 증액[67]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16.5%와 종합과세 중 선택[68]

출처 [12] 노후보장패널 · [13] 국민연금 · [18] 소득세법 · [67] 조기·연기연금 · [68] 사적연금 · [74][75] 유동화 · [81] 연금통계 · [82] 기초연금 · [83] 주택연금 · [84] 퇴직연금 · [87] 노인실태조사 · [96] 중복급여

RISK 03 · 사망·상속 ① 가장의 사망 보장

03 내가 없을 때, 우리 가족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부채는 **9,534만 원**, 평균 소득은 연 7,427만 원이며 그중 **63.9%가 근로소득**입니다. 가장의 근로소득이 멈추면 대출 상환과 생활비는 그대로 남고,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민법 제1005조).**

9,534만 원
가구 평균 부채
임대보증금 포함, 2025년 3월 말[40]

7,427만 원
가구 평균 소득(2024)
근로소득 4,747만 원, 63.9%[40]

503만 원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연 6,032만 원 ÷ 12[40]

40~60%
국민연금 유족연금
기본연금액 대비, 가입기간별[41]

공적 안전망: 국민연금 유족연금[41]

기본연금액의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 10~20년 50% · 20년 이상 60%**에 부양가족연금(2025년 기준 배우자 연 30만 330원, 자녀·부모 1인 연 20만 160원, 매년 물가 반영 인상)이 더해집니다. 예상액은 가입기간·소득에 따라 달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필요 사망보장 계산하기	금액(만 원)
① 남은 대출·부채 참고: 가구 평균 부채 9,534만 원(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_____
② 자녀 교육·독립 자금	_____
③ 유가족 생활비 = 월 _____ 만 원 × _____ 개월 참고: 가구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약 503만 원	_____
④ 준비된 자산 (예금·기존 사망보험금·유족연금 등)	− _____
필요 사망보장 = ① + ② + ③ − ④	**_____**

핵심 포인트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④ 준비된 자산을 적을 때 확인할 것

기존 사망보장의 기간
보장이 대출 만기·자녀 독립 시점까지 이어지는지 증권에서 확인

계약자 · 수익자
보험료를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각각 누구인지 확인

RISK 03 · 사망·상속 ② 상속세 현실

03 상속세는 더 이상 '1% 부자 세금'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그대로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16억 원대**입니다. 서울에서는 **2025년 사망자 6명 중 1명꼴(15.94%)**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물려받는 **자녀(상속인)**가 냅니다.

6.2%
사망자 중 상속세 과세 비율
2025년, 2010년 약 1%[15]

15.94%
서울 과세 비율(2025)
2010년 4.12%에서 약 4배[15]

29년째
그대로인 공제 한도
일괄 5억 · 배우자 5억~30억[15]

68.8%
상속재산 중 건물·토지
2023년 결정분, 건물 47.6%[94]

서울 아파트 1채 상속 (단순 예시)	16억 원 자녀만	16억 원 배우자+자녀	30억 원 자녀만	30억 원 배우자+자녀
공제 일괄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추가	− 5억 원	− 10억 원	− 5억 원	− 10억 원
과세표준 → 세율 적용(10~50% 누진)	11억 → 2.8억	6억 → 1.2억	25억 → 8.4억	20억 → 6.4억
현금으로 내야 할 상속세(약) 신고세액공제 3% 반영	**2억 7,160만 원**	**1억 1,640만 원**	**8억 1,480만 원**	**6억 2,080만 원**

세율표[16] 기준 단순 계산. 금융재산공제·채무·장례비·배우자 실제 상속분 등 미반영.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 확인 필요. **공제가 바뀌어도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내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20쪽).**

직접 계산해 보기

우리 집 상속세·증여세, 1분 자가진단 + 통합 세금 계산기

재산세·종부세·양도세·취득세까지 한 곳에서.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 기준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 상속세 재원 계산 (만 원)	1차 상속 배우자 생존	2차 상속 배우자도 사망 후
① 부동산(시가) + 금융자산 + 부모가 낸 사망보험금	_____	_____
② +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_____	_____
③ − 채무·장례비 장례비 공제 최대 1,000만 원, 봉안시설 500만 원 별도[18]	−_____	−_____
④ − 상속공제 1차: 일괄 5억 + 배우자공제 5억~30억 / 2차: 배우자공제 없음[77]	−_____	−_____
⑤ 과세표준 → 상속세 10%(1억 이하) · 20%(5억) · 30%(10억) · 40%(30억) · 50%(초과), 신고세액공제 3%[16]	_____	_____
⑥ − 현금 재원 기한 안에 쓸 수 있는 예금 등 현금성 자산	−_____	−_____
6개월 안에 더 필요한 현금 = ⑤ − ⑥	_____	_____

1차 상속 때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배우자 사망 시 다시 상속세 대상(2차 상속)이 되고, 이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RISK 03 · 사망·상속 ④ 상속이 시작되면

03 슬퍼할 시간도 부족한 6개월, 상속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내야 하고[93], **빚이 더 많아도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빚까지 물려받습니다**[18]. 몰랐던 빚은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사망 후 해야 할 일과 기한

D-day — 사망
장례 · 사망진단서 발급

1개월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18]
안심상속 함께 신청 가능

3개월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18]
몰랐던 빚은 특별한정승인

6개월 — 상속세·취득세 신고·납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93]
현금 납부가 원칙

1년 — 안심상속 신청 기한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 일괄 조회[88]

3년 — 보험금 청구 시효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18]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다면	조건	부담
분납	세액 1천만 원 초과	2개월 안에 나머지 납부, 이자 없음[89]
연부연납	세액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110~120% 담보 제공	**최장 10년(가업 20년) 나눠 내되 가산금 연 3.1%**(2026.9 기준)[89]
물납	부동산·유가증권 비중 등 법정 요건 충족 시	요건이 까다롭고 세무서 허가가 필요
신고·납부 안 하면	기한 내 미신고·미납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93,18]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보험사에 청구**	수익자가 받습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다름(상증법 제8조)

가족 간 분쟁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유류분**: 자녀·배우자·부모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91].
- **2026년 3월 개정 민법**: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린 상속인은 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빠집니다[91].
- **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수익자를 지정한 사망보험금은 증여로 보아 '보험금 × 부모가 낸 보험료 비율'만큼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2022.8.11,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수익자인 사안으로 사망 전 1년 이내 등 민법 제1114조 요건 적용)[90]. 수익자 지정과 유류분의 관계는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상속세는 '6개월 안에, 현금으로'입니다.
그 사이 가족은 조회·포기 결정·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분납·연부연납·물납 같은 납부 제도의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참고로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확대는 2025년 11월 국회에서 중장기 과제로 미뤄져, 지금은 현행 제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92].

출처 [18] 민법·상법·국세기본법 등 · [88] 안심상속 · [89] 연부연납 · [90] 대법원 판결 · [91] 유류분 개정 · [92] 개편 연기 · [93] 신고 기한

RISK 04 · 손해 ① 운전

04 운전대를 잡는 순간, 민사와 형사 책임이 함께 생깁니다

2025년 교통사고는 **19만 3,889건**, 하루 약 530건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10.8% 늘었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연 2천 건을 넘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 피해를 배상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형사 책임 비용은 자동차보험 배상 범위 밖입니다.**

19.4만 건
2025년 교통사고
부상 27만 1,751명[11]

2,549명
2025년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1.1% 증가[11]

+10.8%
고령 운전자 사고 사망
2025년, 전년 대비[11]

2,232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2024)
사망 23명 · 부상 2,486명[57]

책임	무엇을 물어내야 하나	어떤 담보에서 다루나
민사 손해배상	피해자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차량 수리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대물배상(2천만 원)은 의무,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자차는 선택[18]
형사 처벌·합의	12대 중과실·사망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어린이 상해는 1~15년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18]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본인 피해	내 치료비·차량 손해, 일을 못 하는 기간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자차, 상해보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18]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약물 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위반 · 화물 고정 위반

핵심 포인트

민사 배상과 형사 책임 비용은 서로 다른 담보에서 다룹니다.

벌금·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비용 담보는 실제 비용 한도 안에서 보상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과 겹치는지도 확인하세요.

나이대별 체크포인트

2030
- 첫 차라면 형사 책임 비용 담보가 따로 있는지 확인
- 전동킥보드·자전거 이용 시 사고 보장 여부를 약관으로 확인

4050
-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배우자·자녀)가 실제와 맞는지
- 가족 모두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와 중복 확인

6070
- 고령 운전자 사고 사망 10.8% 증가 (2025)[11]
- 운전자보험 만기·갱신과 계속 운전 여부를 가족과 논의

출처 [11] 2025 교통사고 통계 ·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57] PM 사고 통계

RISK 04 · 손해 ② 집: 화재·누수

04 불이 나거나 물이 새면, 우리 집보다 이웃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2025년 화재는 **3만 8,344건**, 그중 주거시설 화재가 1만 554건(27.5%)입니다. 화재 사망자 346명 중 **60.7%가 집에서** 숨졌습니다. 불이나 누수가 아래·옆집으로 번지면 **누가, 무엇으로 배상하느냐는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8만 건
2025년 화재 발생
국가화재정보시스템[55]

27.5%
주거시설 화재 비중
1만 554건[55]

60.7%
화재 사망 중 집에서
346명 중 210명[55]

50만 원
누수 사고 자기부담금
일상배상, 2020.4 이후 가입[59]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 책임인가	확인할 담보
우리 집 불이 이웃집으로 번졌다	불을 낸 사람의 배상 책임	화재보험 + **화재배상책임** 특약
세입자 부주의로 전셋집에 불이 났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배상	화재보험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우리 집 욕실 누수로 아랫집 천장이 젖었다	거주자(원인 제공자)의 배상 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증권에 적힌 주택)[59]
세입자 집의 노후 매립배관이 새서 아랫집 피해	원칙적으로 집주인(소유자) 책임	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60]
우리 집 가재도구·인테리어가 탔다	본인 손해	화재보험(건물·가재도구)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이 있는데요?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타인 신체·재물 배상 포함) 가입이 법으로 의무입니다[56]. 다만 무엇을 어디까지 보장하는지(세대 가재도구·누수·세입자 책임 포함 여부)는 계약마다 다르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증권으로 확인해 보세요.

핵심 포인트

이사하면 보험 주소도 이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누수 보상은 증권에 적힌 주택이 기준이라, 이사·소유권 변경 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60]

약관 · 증권에서 확인할 것

화재 담보 범위
건물·가재도구 손해와 이웃 피해 배상이 포함되는지

임차자배상책임
세입자라면 빌린 집의 화재 손해 배상 담보가 있는지

일상생활배상책임
증권 주소가 지금 사는 집인지, 누수 자기부담금은 얼마인지

RISK 04 · 손해 ③ 일상 배상책임

04 아이, 반려견, 이웃 일상의 작은 실수도 배상 책임이 됩니다

119가 이송한 개물림 사고 환자는 5년간 **1만 1,152명**, 하루 평균 6명꼴입니다.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일도 흔합니다. **이런 일상 사고의 배상은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다루고, 가입 형태마다 대상이 달라 보장 범위와 제외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1.1만 명
개물림 사고 119 이송(5년)
하루 평균 약 6명[58]

20만 원
일상배상 자기부담금
2020.4 이후 가입, 누수는 50만 원[59]

비례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안에서 나눠 지급[20]

146.3만 원
반려동물 2년 치료비 평균
펫보험 가입 12.8%[95]

보상하는 예

- 자녀가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
- 산책 중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
-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 피해
- 실수로 남의 휴대폰·안경을 떨어뜨려 파손

보상하지 않는 예

- 고의로 낸 사고
- 직무 수행 중 사고
- 함께 사는 가족에게 입힌 손해
- 내 소유·내가 빌린 물건의 손해
-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상품별 약관 기준[59]

유형	보장 대상(피보험자)	주로 해당하는 경우
기본형	본인·배우자·13세 미만 자녀	부부 중심 가구
가족형	함께 사는 친족까지 포함	자녀가 크거나 부모님과 동거
자녀형	자녀만	자녀 사고만 따로 대비할 때

유형 구분·범위는 상품별로 다름[59] · 맹견은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동물보호법)[18]

핵심 포인트

여러 건이면 실제 손해액 안에서 나눠 받습니다.

부부·자녀 보험에 따로 들어 있다면 피보험자 범위가 겹치는지 확인해 보세요[20].

나이대별 체크포인트

2030
- 자취방 이사 시 일상배상 주소 변경
- 반려견을 키운다면 배상 보장 확인

4050
- 자녀 활동 반경이 넓은 시기, 가족형 포함 여부 확인
- 부부·자녀 보험의 중복 가입 확인

6070
- 노후 주택 배관 누수 담보 확인
- 자녀 보험의 가족형에 포함되는지 확인

출처 [18] 동물보호법 · [20] 금감원 비례보상 안내 · [58] 개물림 사고 · [59] 일상배상 보상 범위 · [95] 반려동물 보고서

RECAP · 숫자로 다시 보기

9개의 숫자 앞에서, 우리 집은 준비되어 있나요?

이 가이드에서 본 숫자들입니다. 각 질문에 **솔직하게** 체크해 보세요. **'모름'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칸이 보장점검을 시작할 곳입니다.**

1.8분
마다 1명씩 새로운 암 환자 발생

우리 가족 암 진단비는 충분한가?
☐ 준비됨 ☐ 부족 ☐ 모름

20배
같은 항암제, 급여 365만 원 vs 비급여 7,302만 원

비급여 치료비 대비가 되어 있나?
☐ 준비됨 ☐ 부족 ☐ 모름

9,534만 원
우리나라 가구 평균 부채(2025년 3월 말)

내가 없어도 대출이 가족에게 남지 않나?
☐ 준비됨 ☐ 부족 ☐ 모름

약 9%
뇌혈관질환 진료인원 중 뇌출혈 비중(보장 범위 비교용)

내 뇌·심장 진단비의 범위는?
☐ 준비됨 ☐ 부족 ☐ 모름

3,138만 원
치매 환자 1인 연간 관리비용(시설·병원)

부모님과 나의 치매·간병 보장은?
☐ 준비됨 ☐ 부족 ☐ 모름

13.14%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2017년 6.55%의 2배)

늘어나는 돌봄 비용을 따져 봤나?
☐ 준비됨 ☐ 부족 ☐ 모름

150.7만 원
부부가 평균 수준 연금을 받아도 매달 부족한 생활비(적정 대비)

연금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나?
☐ 준비됨 ☐ 부족 ☐ 모름

2029년
건강보험 준비금 소진 전망(현행 유지 시)

은퇴 후 내 건보료를 알고 있나?
☐ 준비됨 ☐ 부족 ☐ 모름

2.7억 원
서울 아파트 16억 원 1채, 자녀 상속 시 상속세

6개월 안에 낼 현금 재원이 있나?
☐ 준비됨 ☐ 부족 ☐ 모름

핵심 포인트

숫자를 미리 알면, 그 순간 우리 가족이 고를 수 있는 길을 미리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치료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집을 팔지 않을 선택지, 일을 쉬고 회복할 선택지. 그 크기를 숫자로 확인해 보는 것이 이 점검의 목적입니다.

출처 각 수치의 출처는 해당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참조 · 2.7억 원은 세율표 기준 단순 계산

CHECK · 내 보험 구조 읽는 법

같은 보험이라도 '구조'를 알면 새는 돈과 빈 곳이 보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5세대로 나뉘고, 세대마다 자기부담률과 보장 방식이 다릅니다. 2025년 말 기준 실손 계약의 **58.3%가 1·2세대**입니다.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 갱신형인지, 납입면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	판매 시기	자기부담률	특징	계약 비중(2025말)
1세대	~2009.9	없거나 매우 낮음	보장 넓고 보험료 높음, 회사별 상이	17.1% · 618만 건
2세대	2009.10~2017.3	10%(2013년부터 표준 20%·선택 10%)	상품 표준화, 갱신 3년→1년(2013~), 15년 재가입	41.2% · 1,494만 건
3세대	2017.4~2021.6	급여 10~20% · 비급여 기본형 20% / 3대 특약 30%	도수치료 등 비급여 특약 분리	21.6% · 783만 건
4세대	2021.7~2026.5	급여 20% · 비급여 30%	비급여 이용량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17.7% · 641만 건
5세대	**2026.5~**	**급여 입원 20% · 중증 비급여 30% · 비중증 비급여 50%**	**중증 비급여 입원 연 자기부담 상한 500만 원, 4세대 대비 보험료 약 30%↓**	**신규**

세대 구분·자기부담률[44,43,17] · 계약 비중 금융감독원[42] · 5세대로 전환 후 6개월 이내(보험금을 받았다면 3개월 이내)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음[53] · 2세대 행 출처[54]

갱신

갱신형 vs 비갱신형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낮지만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어 오를 수 있습니다. 비갱신형은 계약 기간 동안 보험료가 변하지 않습니다[47].

면제

납입면제

일반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이나 일정 수준(50%·80% 등) 이상 장해 시 이후 보험료를 면제. 유사암은 보통 제외되며 조건은 상품마다 다릅니다[46].

해지

무·저해지환급형

보험료가 낮은 대신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저축 목적에는 맞지 않는 보장성 상품입니다[45].

승환

갈아타기 전 확인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해약환급금 손실, 가입 거절, 면책기간 재시작, 보험료 인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금감원 소비자경보)[48].

핵심 포인트

보장점검은 보험을 더 드는 일이 아니라,
내 보험의 세대·갱신·면제 조건을 읽어 내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보장이라도 구조에 따라 앞으로 낼 보험료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출처 [17][43] 금융위원회 실손 · [20] 금감원 실손 안내 · [42] 금감원 세대별 계약 · [44] 세대별 비교 · [45] 무·저해지 경보 · [46] 납입면제 · [47] 갱신형 · [48] 부당승환 경보

MY GAP · 우리 집 부족액 한 장

✓ 페이지마다 적은 숫자를 한 장에 모으면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앞에서 계산한 숫자를 리스크별로 옮겨 적으세요. **필요액 − 현재 준비 = 부족액**입니다. **부족액이 큰 순서가 보장점검에서 먼저 다룰 순서입니다.** 모르는 칸은 비워 두고, 알게 되면 채우세요.

리스크 · 계산 방법	근거	필요액	현재 준비	부족액	순위
암 진단 치료비(비급여) + 치료 기간 소득 공백	7쪽	_____	_____	_____	____
뇌·심장 진단비 보장 범위(뇌혈관·허혈성 전체인지)	8쪽	_____	_____	_____	____
치매·간병 연 관리비용 · 간병비 · 장기요양 본인부담	9쪽	_____	_____	_____	____
상해·후유장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	10쪽	_____	_____	_____	____
노후 생활비 (목표 생활비 − 연금 합계) × 12 × 노후 기간	17쪽	_____	_____	_____	____
남는 배우자 (1인 생활비 − 남는 배우자 소득) × 12 × 기간	17쪽	_____	_____	_____	____
가장의 사망 부채 + 교육·독립 + 유가족 생활비 − 준비 자산	18쪽	_____	_____	_____	____
상속세 재원 6개월 안에 더 필요한 현금	19쪽	_____	_____	_____	____

금액보다 '있는지'를 보는 보장

- ☐ 운전자보험(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21쪽
- ☐ 화재보험·화재배상책임·임차자배상책임 22쪽
- ☐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형 1건, 증권 주소) 23쪽
- ☐ 실손보험 세대·갱신 조건 25쪽

우리 집 월 보험료 점검

- ☐ 지금 내는 월 보험료 합계 _____ 만 원
- ☐ 가구 소득 대비 비율 _____ %
- ☐ 함께 확인할 것: 기존 계약의 중복 · 특약 범위 · 납입면제 조건
- ☐ 기존 보험 해지는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보장점검의 결과는 '상품 목록'이 아니라
이 표의 부족액을 줄이는 순서입니다.

다음 쪽의 보장점검 결과 예시(게이지)는 이 표의 필요액을 100%로 놓고 현재 준비율을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WHY · 보장점검이 필요한 이유

보험은 개수보다 겹침과 빈칸을 먼저 봅니다

보험이 여러 개 있어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부족하거나, 같은 보장에 보험료를 두 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장점검은 새 보험을 권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가진 보험을 '진단'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중복 **같은 보장에 보험료를 두 번**

실손·일상생활배상책임은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안에서 나눠 지급(비례보상)됩니다. 직장 단체실손과 겹치면 개인실손(1년 이상 유지 시)을 중지하고,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재개할 수 있습니다.[52]

공백 **필요한 보장이 비어 있음**

뇌출혈만 보장하는 진단비(뇌혈관질환 진료인원의 약 9%), 간병·배상·운전자 보장 누락처럼 범위가 좁거나 빠진 경우입니다.[31]

과잉 **유지하기 버거운 보험료**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갈아타기는 면책기간 재시작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45,48]

노후화 **가입 당시와 달라진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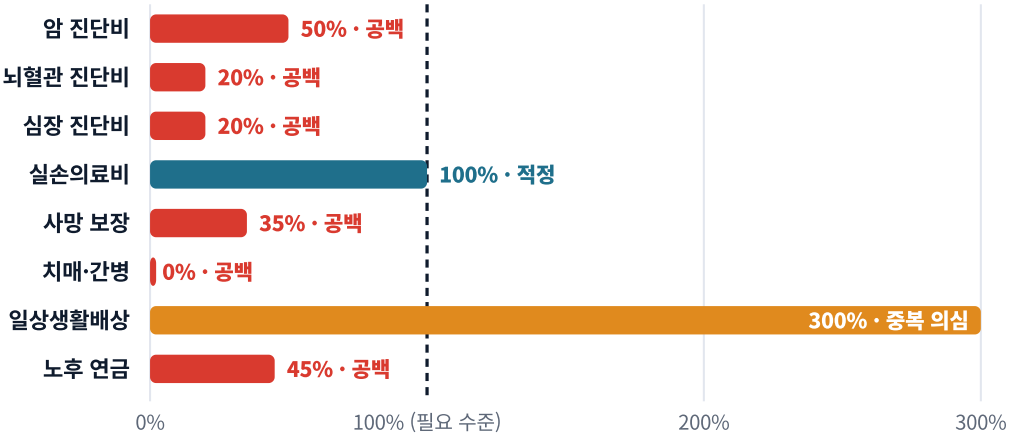
갱신형 보험료 재산정, 80세 만기 등 짧은 보장기간, 1~5세대 실손의 자기부담 구조 차이(25쪽)를 점검해야 합니다.[17]

생명보험 · 손해보험 증권을 한 장에 모아 보세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따로 가입해도 보장이 겹치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진단비(생보)와 실손·운전자·일상배상·화재(손보)를 한 장에 모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가상 예시: 칸마다 준비율을 그려 보면 (45세 가장)

가상 예시 · 100% = 소득·가족·부채를 바탕으로 정한 목표 보장액. 그 대비 현재 준비율(%)



1분 셀프 진단

내 보험, 뭐부터 볼까? 3문항 빠른 진단 · 4문항 세부 진단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비추면 바로 시작됩니다. 결과는 내 유형과 먼저 볼 보장 순서로 나옵니다.

출처 [17] 금융위원회 5세대 실손 · [20] 금감원 실손 안내 · [31] 심평원 뇌혈관질환 · [45] 무·저해지 경보 · [48] 부당승환 경보

CHECK · 셀프 점검

체크하지 못한 항목이 보장점검에서 먼저 볼 부분입니다

- [ ] 가입한 보험 수와 매달 내는 보험료 총액을 안다
- [ ] 내 실손보험이 몇 세대(1~5세대) 상품인지 안다
- [ ] 일반암과 유사암(갑상선암·제자리암 등)의 지급 기준을 안다
- [ ] 뇌·심장 진단비가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안다
- [ ] 보장 만기(80세? 100세?)와 갱신 시 보험료를 안다
- [ ] 내가 아프거나 없을 때 가족에게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봤다
- [ ] 국민연금 예상액과 노후에 매달 부족한 금액을 안다
- [ ] 부모님 또는 우리 집의 예상 상속세와 납부 재원을 안다
- [ ] 운전자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의 중복·공백을 안다
- [ ] 나와 부모님의 치매·간병 보장 여부를 안다

혼자 점검할 때 꺼내 둘 것

- 보험증권 또는 「내보험다보여」 조회 결과
- 가족 구성과 월 고정지출
- 앞쪽 계산표에 적은 숫자
- 궁금했던 보험 조항 · 청구 경험 메모

점검 원칙

- 기존 보험 해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 유지 · 조정 · 보완의 근거를 숫자로 확인합니다
- 가입 여부와 시기의 결정은 본인이 합니다

혼자 점검하는 순서

01
가입내역 확인
「내보험다보여」로 전 보험사 가입내역을 한 번에 조회[22]

02
계산표에 적기
앞쪽 계산표에 우리 집 숫자를 적어 보기

03
리스크별 비교
5대 리스크별 필요 보장 vs 현재 보장, 중복·공백·과잉 표시

04
다시 보기
이사·출산·퇴직 등 생애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점검

내 보험 한 장에 적어보기

아는 만큼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보험사 · 상품명	피보험자	월 보험료	만기 / 갱신	주요 보장
1					
2					
3					
4					
5					
6					

「내보험다보여」(한국신용정보원)에서 본인 인증으로 전 보험사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SOURCES · 출처 1/4

이 자료의 모든 숫자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출처가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중앙암등록본부,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2026.1 발표), 기대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
https://www.cancer.go.kr/lay1/S1T639C640/contents.do

[2] 국립암센터 웹진, 「중앙암등록본부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 발표」, 5년 상대생존율 73.7%, 암유병자 273만 명
https://www.ncc.re.kr/webzine/202602/sub_04_view.jsp?tab=tab1

[3] 국가암정보센터, 「연령군별 암발생률」(2023년 기준)
https://www.cancer.go.kr/lay1/S1T639C642/contents.do

[4] 국가데이터처, 「2024년 사망원인통계」(2025.9.25)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21880

[5]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2025.12.3), 기대수명 83.7년, 건강수명 65.5년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32935

[6]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025.12.30), 보험연구원 주간동향 수록
https://kiri.or.kr/PDF/weeklytrend/20260105/trend20260105_1.pdf

[7] 건강보험연구원 생애의료비 분석(2023년 기준),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2026.1.7)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8273

[8] 2024 건강보험통계연보, 65세 이상 진료비, 서울신문 보도(2025.11.28)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welfare/2025/11/28/20251128500094

[9]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2025.3) / 서울경제 보도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4959&act=view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Q88Q9IOD

[10] 질병관리청,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2026.8.26), 약사공론·아시아경제 보도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575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2606583618460

[11] 경찰청·도로교통공단, 「2025년 교통사고 통계」(2026.4), 장애인복지뉴스 보도
https://www.dw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3231

[12] 국민연금연구원,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부가조사」(2025.12): 적정 노후생활비 개인 197.6만·부부 298.1만 원, 최소 개인 139.2만·부부 216.6만 원 / 농민신문 보도(2026.1.3)
https://www.nps.or.kr/pnsgdnc/nscvrgdata/getOHAE0002M1.do?hmpgBbsCd=BS20240145&hmpgCd=01&menuId=MN24000898&pageIndex=1&pstId=ZZ202500000000001624 · https://v.daum.net/v/20260103140006377

[13]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2025.7 기준), 세무사신문 보도 / 국민연금공단 통계
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997 · https://www.nps.or.kr/pnsinfo/statistics/getOHAF0115M0.do

[14]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5」 기반 분석,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2026.7.19)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9632

[15] 국세청 통계 인용 보도, 머니투데이(2026.9.20 · 9.21), 상속세 과세 비율, 공제 현황, 서울 아파트 평균가
https://www.mt.co.kr/economy/2026/09/20/2026091708361296418 · https://www.mt.co.kr/economy/2026/09/21/2026092023051532205

[1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 세율표·신고기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17] 금융위원회, 「5세대 실손의료보험」 보도자료(2026)
https://fsc.go.kr/no010101/86831

[18]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동물보호법(맹견 책임보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3조·제22조·제34조·제53조·제60조·시행령 제9조(장례비), 소득세법 제16조·제59조의3·시행령 제25조, 상법 제652조, 민법 제1005조·제1019조·제1112조, 상법 제66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국세기본법(가산세)
https://www.law.go.kr

[19] e-나라지표, 「화재발생 현황」(2023년 기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32

[20] 금융감독원 안내, 실손 중복가입·비례보상·개인실손 중지제도, 아시아경제 보도(2026.5.1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51915111368313

[21]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머니투데이 보도(2026.7.28)
https://www.mt.co.kr/amp/thebio/2026/07/28/2026072811274013149

[22] 한국신용정보원 「내보험다보여」(본인신용정보 열람) /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https://www.credit4u.or.kr · https://cont.insure.or.kr

[23] 보건복지부·중앙암등록본부,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 참고자료」(2026.1.20), 암종별 발생자 수·순위, 평생 발생 위험 41.2%
https://www.cancer.go.kr/download.do?uuid=cfcd35c3-391f-4060-9688-641db3d86cbd.pdf

[24] 국가암정보센터, 「암종별 5년 상대생존율」(2019~2023년 진단)
https://www.cancer.go.kr/lay1/S1T648C650/contents.do

[2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암 산정특례 본인부담 5%(5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3&ccfNo=3&cciNo=1&cnpClsNo=2

SOURCES · 출처 2/4

출처 (계속)

[26] 보건복지부 발표, 키트루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4→13개 암종, 2026.1.1 시행), 뉴시스 보도(2025.12.2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23_0003452206

[27] 중입자치료 비용 약 5,500만 원·건강보험 미적용(연세암병원), 코메디닷컴 보도
https://kormedi.com/1593303/

[28] 로봇수술 비용·비급여 현황(보건복지부 자료 인용), 머니투데이 보도(2026.2.5)
https://www.mt.co.kr/thebio/2026/02/05/2026020420194690523

[29] 간병비 부담(보건의료노조 조사 2023)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주간경향 보도(2025.10.13)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10130600011

[30]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2025 국정감사), 10대 암 진료비, 히트뉴스 보도(2025.10.19)
https://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909

[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뇌혈관질환·뇌졸중 진료 현황(2018~2022), 병원신문 보도(2023.9)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745

[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장질환 진료 현황」(2018~2022) / 허혈성 심장질환 연령 분포(2019), 메디칼업저버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1037&pageIndex=1 ·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41

[33] 보건복지부,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2026.9.8), 의학신문·병원신문 보도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707 ·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917

[34]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보료 대비 13.14%) / 과거 추이(2017년 6.55%)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627 ·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275926625898480

[35] 국민연금법 개정(연금개혁), 보험료율 2026년 9.5%부터 매년 0.5%p, 2033년 13%, 소득대체율 43%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59948

[36]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2026.6.11)
https://www.nabo.go.kr/board/file/bulkDown.do?idx=9299&bid=68

[37] 은퇴 후 건강보험료·피부양자 기준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8380 ·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5084

[38] 신한금융그룹 인사이트, 「보험은 10년만 지나면 비과세라는데 맞나요?」(2026.6.1),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https://www.shinhangroup.com/kr/archive/insight/extend/detail/32857

[39] 종신보험 계약 구조별 상속세 과세 기준(흠택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https://www.heumtax.com/contents/posts/life-insurance-tax-check · https://taxlaw.nts.go.kr

[40] 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2025.12), 가구 평균 자산·부채·소득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33201

[41]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률·부양가족연금(2025),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 국민연금공단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contents/view.do?idx=22662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72M0.do

[42] 금융감독원, 세대별 실손보험 계약 현황(2025년 말), 파이낸셜뉴스 보도(2026.6.3)
https://www.fnnews.com/news/202606031200392605

[43]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 보도자료(2025.4.1)
https://www.fsc.go.kr/no010101/84272

[44] 교보생명 뉴스룸, 「세대별 실손보험 비교(1~4세대)」
https://news.kyobo.com/%EC%84%B8%EB%8C%80%EB%B3%84-%EC%8B%A4%EC%86%90%EB%B3%B4%ED%97%98-%EC%99%84%EB%B2%BD-%EB%B9%84%EA%B5%90-1-4%EC%84%B8%EB%8C%80-%ED%95%9C%EB%88%88%EC%97%90-%EC%A0%95%EB%A6%AC/

[4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소비자경보(2019.10.23)
https://www.fsc.go.kr/no010101/73932

[46] KB의 생각,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은?」
https://kbthink.com/insurance/basics/waiver-of-premium.html

[47] KB의 생각,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https://kbthink.com/insurance-guide/renewable.html

[48] 금융감독원, 보험 부당승환 소비자경보(2026.5.12), 이투데이 보도
https://www.etoday.co.kr/news/view/2583493

[49] (이 판에서는 쓰지 않는 출처입니다)

[5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암환자 273만 명 시대,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2026.1.20), 연도별 발생자 수, 65세 이상 환자, 연령표준화 발생률
https://www.cancer.go.kr/download.do?uuid=60932fec-9b3c-48f8-aedc-7811aa3f1565.pdf

SOURCES · 출처 3/4

출처 (계속)

[51]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보도(2025년 동결 12.95%·2024년 0.9182%·2023년 0.9082%·2019년 8.5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609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530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201811051830753098

[52]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단체→개인 전환, 개인실손 중지·재개) 보도자료(2018.12)
https://fsc.go.kr/po010101/73428

[53]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안내(5세대 전환 후 환원·중지·재개), 머니투데이 보도(2026.5.19)
https://www.mt.co.kr/finance/2026/05/19/2026051910252597175

[54] 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제도 변천 연구보고서(2018)
https://www.kiri.or.kr/pdf/연구자료/연구보고서/nre2018-06_03.pdf

[55] 국가화재정보시스템 2025년 화재 통계, 인천일보 기고(2026.9.18)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2167

[5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69&ccfNo=6&cciNo=2&cnpClsNo=1

[57]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2024년 통계, 카가이 보도
https://www.carguy.kr/news/articleView.html?idxno=53917

[58] 소방청, 119 개물림 사고 이송 환자 5년 통계, 데일리벳 보도
https://www.dailyvet.co.kr/news/etc/148059

[59] KB의 생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https://kbthink.com/insurance-guide/daily-life-liability.html

[60] 임차인 누수·화재 배상책임 해설(다자비 보험매거진)
https://www.dazabi.com/insurance_magazine/article.php?id=2243

[61] 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출생아 수, 평균 출산연령, 35세 이상 산모 비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45912

[62] 출생통계 보도(조산아 10.8%·다태아 6.1%), 한국경제(2026.8.2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648021

[63] 국가데이터처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25」, YTN 보도(2025.12.26), 75세 이상 만성질환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261414172676

[64] 보험연구원 인용, 간편심사(3·N·5) 고지 기준, 보험저널 보도(2023.2.17)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70

[65]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조정 결정(2026.7), 데일리안 보도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71408

[66]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8478&mid=a10503000000 · https://v.daum.net/v/20260211181635083

[67]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안내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68] KB의 생각, 「사적연금 종합과세 vs 분리과세」(2024), 연 1,500만 원 기준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pension-n-old-age/kb-goldenlife/kb-goldenlife-240112.html

[69]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장 한도·자기부담 해설(브런치)
https://brunch.co.kr/@jeremysongkr/607

[70] 주혜진 외(고려대 예방의학교실), 「Projection of Future Medical Expenses Based on Medical Needs and Physician Availability」, JKMS(2025.3), 건강보험료율 2024년 7.09% → 2060년 14.39% 전망, 경향신문 보도
https://jkms.org/DOIx.php?id=10.3346%2Fjkms.2025.40.e121 · https://v.daum.net/v/HUG3ToDxSb

[71] 고려대 산학협력단(윤석준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장기요양보험 2055년 보험료율 현행 대비 2.7~3.6배(2.536~3.425%) 전망, 매일경제(2026.7.11)·메디게이트뉴스(2026.8) 보도
https://v.daum.net/v/xDISlnd8v5 · https://www.medigatenews.com/news/1057242637

[7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망 인용, 건강보험 2050년 적자 44.6조 원·노인 진료비 비중 70.2%, 서울경제 보도(2026.7)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2429

[7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 제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LinkContentView.do?SEQ=28&LINKCODE=c004100000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74] 금융위원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정책브리핑 2025.8.19, 보도자료 2025.10, 소비자 Q&A 2025.12.2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821 · https://www.fsc.go.kr/no010101/85451 · https://fsc.go.kr/po020201/85930

[75] 사망보험금 유동화 세제·유의사항, 비즈워치(2025.8.23)·IB토마토(2025.10.22)·보험신보(2026.9.21) 보도
https://v.daum.net/v/KtE1PxUllN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8244 · https://www.insweek.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02

SOURCES · 출처 4/4

출처 (계속)

[76]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2025.9.1 시행),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235

[7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증여 관련 세금」 / 세택스 「2026년 상속세율·공제 총정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3&ccfNo=5&cciNo=3&cnpClsNo=1 · https://setax.kr/inheritance/table

[78] 정책브리핑,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 시 1억 원까지 공제」(202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38

[79] (이 판에서는 쓰지 않는 출처입니다)

[80]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법률신문(2026.8.10)·법무법인 태평양 뉴스레터(2026.8.21)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12 · https://www.bkl.co.kr/newsLetter/itemUrl.do?itemNo=6694

[81] 국가데이터처, 「2024년 연금통계」(2026.8.25):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 91.2%, 월평균 73.7만 원·중위 49.7만 원, 직역연금 278.3만·국민연금 49.1만·기초연금 30.0만 원, 60~64세 미수급 55.6%. 아시아경제·서울신문·서플 보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2511275864372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8/26/20260826008007 · https://supple.kr/news/cmt82yvo4000bq2g80n0q6t1s

[82]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부부가구 최대 55만 9,520원, 뉴스핌 보도(2026.1.2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128000695

[83]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자 15만 명 돌파(2025.12 기준 평균 월지급금 약 127만 원·평균 가입연령 72.4세), 아시아경제(2026.2.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20415383778888

[84] 2024년 퇴직연금 수령 통계(연금 수령 계좌 13.0%, 일시금 87%), 언론 보도(2025.12.10) /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
https://v.daum.net/v/20251210151336208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5107

[85] KB금융그룹 「2025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5.9): 노후 적정생활비 월 350만 원·최소 248만 원·조달 가능 230만 원, 노후준비 충분 19.1%, 희망 은퇴 65세·실제 56세. 뉴시스 보도
https://asemgac.or.kr/bbs/bbs/view.php?bbs_no=64&data_no=10614 · https://kbthink.com/content/dam/kb-financial-group/holdings/IBR/05/2025/09/202509280849360/2025KB%EA%B3%A8%EB%93%A0%EB%9D%BC%EC%9D%B4%ED%94%84%EB%B3%B4%EA%B3%A0%EC%84%9C.pdf

[86] 보험연구원 중고령자 조사(2025.7~8, 55~79세 3,000명): 은퇴가구 32.5% 지난 1년 생활비 부족 경험, 디지털타임스 보도(2026.4)
https://www.dt.co.kr/article/12064351

[8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노인실태조사」(2024.10): 노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노인부부 176.0만·독거 117.2만 원), 캐어유뉴스 보도(2024.10.29)
https://www.careyou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61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5081

[88] 정책브리핑,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금융·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연금 일괄 조회
https://m.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1775

[89] 상속세 분납·연부연납(세액 2천만 원 초과, 담보 110~120%, 최장 10년·가업 20년, 가산금 연 3.1%), 흠택스·FAKT(2026) 해설
https://www.heumtax.com/contents/posts/inheritance-tax-installment · https://fakt.co.kr/family-biz-succession-07-installment-payment-deferral-2026/

[90]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생명보험금과 유류분 산정), 대법원 판례속보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712&gubun=4&type=0

[91] 상속권 상실 선고·유류분 민법 개정(2026.3.17 공포·시행), 김·장 법률사무소 / 「2026년 달라지는 유류분 제도」, 한경머니(2025.12)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4295 ·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512166128c

[92] 유산취득세 도입·공제 확대 국회 처리 연기, 한국경제 사설(2025.11.29) /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일간NTN(2025.5.21)
https://v.daum.net/v/20251129001150572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610

[93] 상속세·취득세 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 무신고 가산세, 라이나전성기재단 매거진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495

[94] 국세청 통계 인용, 2023년 상속세 결정분 상속재산 중 건물·토지 68.8%(건물 47.6%·토지 21.2%), 이데일리(2024.6.20) / e-나라지표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현황」(2025년 과세인원 2만 2,524명)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171366638923688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48

[95] KB금융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반려가구 591만, 최근 2년 치료비 평균 146.3만 원, 펫보험 가입 12.8%, 서울신문(2025.6.30)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06/30/20250630017009

[96]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본인 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 30% 추가 지급),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인용 아시아경제(2026.8.2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2310452844521

[9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감경 대상 40%·60%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038&ccfNo=3&cciNo=3&cnpClsNo=1

유의사항

- 본 자료는 공공 통계·법령과 공개 보도에 근거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보험상품의 가입 권유나 보장 내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보장 범위·보험금·보험료는 상품 약관, 가입 조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상 가계부(7쪽)와 세금 계산은 공개 사례·세율표와 표시된 가정값을 조합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비용·세액은 개인 상황과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비과세 요건, 급여 적용 범위는 법령·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